

<2010년 9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지땅에 작품 보화가 많은데 묻혀 있다. 빼낼 것은 빼내야 된다. 주인은 안다.
2. 보화도 캐내서 가공해야 100배나 가치 있게 쓴다.
3. 보화를 가공하듯 나무는 물과 퇴비를 하여 키우고, 바위는 파내서 키우고, 샘은 파내서 찾아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다.
4. 만물의 보화를 인간 보화에 접목시켜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우고, 손목에 차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5.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하나님, 자기 성령님, 자기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
6. 하나님 보화는 면류관 같고, 예수님 보화는 시계 같고, 성령님 보화는 반지와 목걸이와 귀고리 같다. 꼭 걸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은 상의 같고, 예수님은 하의 같고, 성령님은 속옷 같으니 꼭 같이 입고 빛내야 한다. 신발은 삼위의 신령한 신으로 신어야 한다.